

북한을 위한 기도

2025년 12월



1.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을 비롯해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등이 여전히 억류 중입니다. 거기에 더해 북한은 강제 북송된 탈북 신자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억류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년만에 귀환한 장문석 집사

2. 북한의 사이버 위협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북한은 세계 곳곳에서 사이버 범죄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암호화폐 해킹을 비롯해 방산 기술 탈취, 각종 테러 활동,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공격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북한 선교 사역자나 기관뿐 아니라 일반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방식 또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직분자로 속여 신뢰를 쌓는 등 한국 교회의 문화를 잘 이해한 교묘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이 약화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보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을 북한을 향한 선교적 관심과 참여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침&
[서빙고 새벽기도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편 77:1-9) | 2025.06.18 >
온누리교회

JBC news

6월 18일 서빙고 새벽 예배
유튜브 스트리밍 중 예기치 않은 영상이
송출되는 해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셜 Pick

성경 읽다 돌연 '인공기'가
예배 생중계 중 벌어진 일



3.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은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과시하였고,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대립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높아진 자신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갈등과 분쟁 속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핵 보유와 경제난을 해결하겠다는 전략에 따라 한반도 긴장 조성을 위해 남한을 적대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한반도가 북한이 말하는 대결의 장이 아닌 평화의 무대가 되도록, 그리하여 북한의 논리가 힘을 잃고 오히려 평화와 통일로의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중·러 3국의 협력 강화가 선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복잡한 외교 상황이 선교 현장의 위기를 불러올 위험도 있지만,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교류 확대로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대결 구도가 심화하지 않고 그로 인해 선교사들의 체류와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과 주변국 간의 교류 확대가 더 많은 북한 출신 영혼들과의 접촉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일선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주어진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구합니다.



사드 사태 당시 선교사 추방 관련 보도

5.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등한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방의 매서운 추위가 주민들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지방의 소외 지역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심해지는 빈부격차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의 인권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9월 4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채택 10주년을 맞아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2014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한 부분이 많다고 종합 평가하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운영이나 종교의 자유 제한, 성분에 따른 차별 및 납북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이 여전한 가운데, 주민 생활을 억압하는 각종 사상 문화 통제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사형과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생명권과 정보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가 더욱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한 억압이 끊어지고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민위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HRC/60/58	
Advance edited version	Distr.: General 4 September 2025 Original: English
<hr/>	
Human Rights Council Sixtieth session 8 September–3 October 2025 Agenda items 2 and 4 Annual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reports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and the Secretary-General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9월 4일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

7.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24년 러시아로 입국한 북한 주민은 1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12배로 폭증했습니다. 25년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노동자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으로의 노동자 파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노무 기업이 북한 인력 알선을 선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밖을 경험하게 될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세계 각 지역 교회와 선교사들이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인력 알선을 선전하는 중국 기업 (사진=NK NEWS)



8.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화하고 있는 제3국 북한 선교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등록 가정교회에 대한 대규모 처벌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종교 활동에 대한 처벌로 알려져 온라인 선교 사역에 비상 경고가 울린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2024년 초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이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 중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선교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많은 선교사가 현장을 떠났고,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존하며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